

오늘의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_ 로마서 8:21-22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 5 | 파더와이즈 소개 / 교사일기 |
| 3 |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 6 | 교회사용설명서 - 청년부 |
| 4 | 성지순례 후기 | 7 | 십자말씀이 - 에스더 |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알록달록 우리 삶

뜨거웠던 공기가 있거나 했었는지 잊을만큼 벌써 아침저녁 느껴지는 찬바람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만큼이나 울긋불긋 변하는 나뭇잎들도 창조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숨조차 내쉴 수 없이 버거울지라도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 어느샌가 우리 삶도 알록달록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을테지요. 불어오는 바람과 떨어지는 낙엽에 쓸쓸해하기보다 그 사이사이에 달려 있는 열매를 바라보며, 시들어가는 듯하나 사실은 익어가고 있는 논밭의 곡식처럼 우리 삶도 귀한 열매가 되는 가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③

창조세계를 돌보는 백성

환경문제가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은 지금까지의 여름보다 더 더웠는데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있고 지구 곳곳에는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소명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임을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3장 ‘창조세계를 돌보는 백성’에서 성경이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위대한 환상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계21:1)”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죄와 구원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악과 죄로 황폐해지는 우주를 보시고, 모든 창조세계를 완전히 구속하고 회복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것을 미리 성취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새 창조세계에서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선교는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류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살 의무를 우리에게 확실히 강화하고 심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가 창조세계를 통치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라(창 2:15)”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섬기고 돌보도록 배치되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땅의 유익을 위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열심히 창조세계를 돌보고 그것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31:8)”는 말씀은 인간이 비인간 피조물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생태학적 활동, 여러 종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 환경보호 활동 등이 이에 속합니다. 동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의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차원은** 우리가 나머지 인류와 공유하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피조물을 섬기고 돌봄으로써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세계를 돌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목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피조물의 파괴, 오염, 낭비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피조물의 능력을 한층 더 축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창조세계는 완전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땅 피조물’이며, 다른 모든 피조물 및 이 땅 자체의 동일한 기본 ‘재료’들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수자원에 대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좋은 나쁜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인간의 삶과 땅 위의 모든 생명은 통합되어 있기에 생태학적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은 창조세계를 십자가의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포함시킵니다(골 1:20).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뿐만 아니라 창조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창조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것을 돌볼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창조세계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궁극적 운명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는 창조세계를 포함합니다.**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태학적 활동은 창조적 차원과 구속적 차원 둘 다를 지닙니다.** 생태학적 활동은 성경의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대한 선교적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공인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에너지 낭비를 피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그냥 버리기보다는 재활용하고, 오염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파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정치적·경제적 계획을 후원해야 합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창조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지구 보호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환경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책임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2023 가을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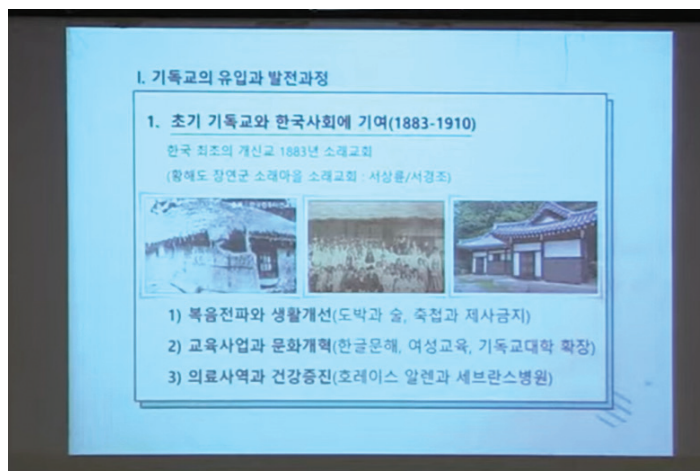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2023년 9월 1일과 2일 2023년 가을 겨자씨인도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9월 1일은 '한국사회와 기독교인의 정체성 진단' 을 제목으로 김충렬 박사(전 한일장신대 상담학 교수,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은 기독교의 유입과 발전과정, 기독교의 성장문화와 원인분석, 기독교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9월 2일에 이어진 특강은 전교인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정신건강' 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함줄함울

한국사회와 기독교인의 정체성 진단

기독교의 유입과 한국의 종교적 상황을 경전, 제례, 내세, 교육으로 구분하며 비교해보면 샤머니즘은 경전과 교육은 없지만 종교바탕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교육이 없고, 유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4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는 종합적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는 1883년 황해도 장연군 소래마을의 소래교회입니다. 초기 교회는 복음전파와 생활개선, 교육사업과 문화개혁, 의료사업과 건강증진에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때는 민주주의와 교회자치제, 민족주의와 민주적 실천, 사회참여와 봉사실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는 국가적 어려움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경제발전과 교회의 성장 시기였습니다. 교세확장과 교회건축, 대형교회의 출현, 선교사 파송 세계 2위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봉사에 특별히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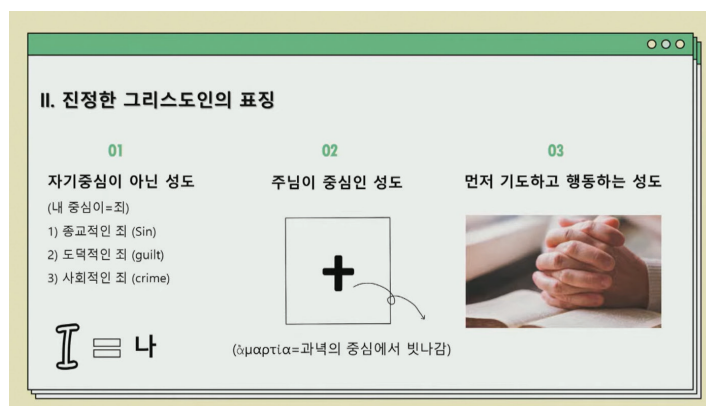
그러나, 1990년부터는 교회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 영성의 문제, 사회적 문제의 영향, 교회 문제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부족으로 영적 능력과 말씀 실천이 감소하고, 생활수준의 상승이 안일함으로 나타납니다. 개신교의 분장, 지도자의 스캔들 등이 나타납니다. 이후 목회와 전도, 선교의 변화가 생깁니다. 목회자 중심의 전통적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회적 교회가 나타나고 지금은 교회의 전통과 역사에서 실제적인 생활과 그룹활동 중심인 전통적+사회적 융합적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상태는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물질주의에 관심을 두며 복음전파의 열심이 저하되고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나안 교인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김충렬 교수는 기독교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기도의 강화, 말씀의 실천, 영적체험의 간증을 통한 영적능력의 회복을 제시합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선교전략을 수정하고, 정신의 연속성과 상징적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의 리더십이 회복되고 사회봉사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날 수련회 영상

신앙생활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성도관계가 흐트러지면 신앙의 발전이 멈춥니다. 인간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고통을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결핍된 존재이며, 이기적 존재이고, 배반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채우려고 하고 자기만 사랑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배반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문제가 커지고 이해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인간의 특성을 이해할 때 문제가 작아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려울 때 전문가를 찾고, 항상 배우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징은 '자기중심이 아닌 성도'입니다. 종교적인 죄(Sin), 도덕적인 죄(Guilt), 사회적인 죄(Crime)의 영어단어 가운데에 'I'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죄가 됩니다. 두 번째 표징은 '주님이 중심인 성도'입니다. 세 번째 표징은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는 성도'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에게 손을 퍼지 못한 것,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지만 세 번째는 상대방이 필요없는 것임에도 행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부정



둘째날 수련회 영상

화의 긍정화를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대신에 '억지로'를 붙이면 쉽게 다가옵니다. '억지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정성이 쌓이면 분노(화)가 납니다. 화는 미움이며, 미움은 교만입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질 때 교만해집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부정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긍정에너지가 10~20%가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40%는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0%이상이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며 70%만 되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발전기를 돌리면 긍정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함줄함울

주님의 발자취 따른 은혜의 길

주님의교회 성지순례단이 2023년 8월 21부터 31일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성지를 순례했다. 성지순례단(단장 이용수 장로)은 인솔교역자인 황바울, 박주영 목사를 포함 4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스라엘에서 묵회하고 있는 이강근 목사가 현지 안내를 맡았다.

8월 21일 중국 상공의 기상 이변으로 인천공항에서 예정보다 2시간 지연 출발한 성지순례단은 약 10시간의 비행 끝에 이스라엘 벳구리온 공항에 도착하여 베들레헴에서 여정을 풀었다. 8월 22일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순례로 본격적인 순례를 시작한 순례단은 예루살렘에

서 2박, 갈릴리에서 2박을 한 후, 요르단으로 이동하여 암만과 페트라에서 각각 1박했으며, 다시 이스라엘로 이동하여 예리고에서 2박을 한 후 벳구리온 공항에서 귀국행 항공편에 오르면서 여정을 마쳤다. 예루살렘에서는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통곡교회, 감람산의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십자가의 길, 통곡의 벽, 히스기아 터널, 실로암 등의 성지를 순례했고, 갈릴리에서는 갈멜산, 나사렛 예수님 거주지, 가나혼인잔치기념교회, 팔복교회, 오병이어교회를 순례했으며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했다.

요르단에서는 엘리야의 고향, 압복강, 느보산, 아르논골짜기, 페트라, 모세의 샘 등을 순례했으며, 예리고에서는 예리고성, 마사다 유적지, 쿠파 동굴, 선한사마리아인교회 등을 순례했다.

일정 동안 중동지역 건기 특유의 뜨거운 햇볕과 고온이 계속된 가운데 땀 흘린 일정으로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현지 안내를 맡은 이강

근 목사의 깊이 있으면서도 유머가 결집된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2017년 이후 6년만에 이루어진 귀한 성지순례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성지순례단은 현지 일정 이전에 있었던 2차례의 양육과정을 포함 9월에 예정된 양육과정까지 5차례의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 해체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예루살렘의 순례단

성지순례 후기

감사와 위로의 순례길

행운과 고민

교회 주보에 실린 성지순례 안내를 보고 바로 신청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탈락, 순례 일정이 앞당겨지고 순례 참여 인원이 다소 늘면서 운 좋게 추가합격의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례 전 기쁨과 설렘이 가득하였으나, 팔레스타인의 비극과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한 복잡한 생각으로 설렘만큼의 불안과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통해 앞으로 저의 삶의 방향과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해답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순례자가 만난 그 땅은 해발고도 -400m에서 2800m를 오가는 극한의 기온, 사막의 모래바람 그리고 석회암과 사암이 만들어낸 척박한 돌투성이였습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묵었던 호텔 식당에서, 순례 중 들렀던 식당에서 만난 식탁은 알찬 곡식과 채소, 과일도 풍요로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러하듯 그 풍요로움은 천혜의 자연 속에서 저절로 누리는 풍요가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와 성경에서 만났던, 수천 년의 시간을 오가며 광야와 고원에서 삶을 살아낸, 아직도 제 삶에 살아계신 분을 11일간의 순례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제 귀에 옛이야기를 속삭이고, 저의 투정과 원망을 다독이며, 때론 저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극한 기온과 사막의 모래바람이, 시련과 혹독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었나... 하구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순례 일정은 이스라엘 현지 가이드이셨던 이강근 목사님과 박주영, 황바울 목사님께서 꼼꼼하고 빠르게 빈틈없이 짜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순례의 첫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호텔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The Church of the Nativity)로요. 뒤바뀐 일정의 첫 출발지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니! 시작부터 참 멋지고 근사했습니다. 이른 아침 순례객과 관광객이 없는 시간에 조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의 미사도 감격스럽게 잠깐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일정에 없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와디켈트계곡(Wadi al Qelt) 절벽에 세워진 성조지수도원(St. Jorge Monastery). 저희 일행을 태운 대형 버스가 산 입구에 멈추자 한 소녀가 저희를 따라왔고, 순례팀이 수도원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산 정상에 오르자 보자기를 풀어 장신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이 맨발의 소녀에게 흥정도 없이 물건을 사는 동안 저는 제 양산이 만들어준 그늘 한쪽을 그 소녀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순

간 저를 올려다보는 소녀와 눈이 마주쳤고 갑자기 제 심장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교회와 박물관(Museum of the Good Samaritan)이었고, 나무 지붕 아래 소박한 그곳 교회에서 저는 예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가 만든 작은 그늘을 나눌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리고

11일간의 일정에 함께 하신 순례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툰여덟 분 모두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지순례라기보다 극기훈련이라 착각될 정도로 애쓰시고 전심으로 기도해주시며 순례팀 한 분 한 분을 섬겨주신 박주영 목사님과 황바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매 순간 채워주시며,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천희 집사 / 2교구 한몸 가져와



예수탄생교회 내부

성조지 수도원

가정사역원
파더와이즈

남성들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 지혜로운 아버지 <파더와이즈>

남성들 대부분은 시간과 바쁜 일정에 쫓겨 인생의 다른 우선순위들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남성들이 원래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파더와이즈>는 남성이 바른 인생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주님의교회 가정사역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5기를 맞이한 파더와이즈는 10월 6일(금)부터 11월 24일(금)까지 8주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남성 성도분들이 내면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파더와이즈>에 주님의교회 가정, 아버지, 남편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1. <파더와이즈>는 성경적 진리를 배웁니다.

◎ 하나님 -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 배우기 ◎ 결혼생활 - 가정의 영적 머리 되기
◎ 자녀양육 - 훈육에 관한 중요한 문제 해결하기 ◎ 직업 - 남성의 하루 일과에 대한 4가지 성경적 테스트 ◎ 세상 - 섬기는 마음 갖기

2. <파더와이즈>는 실제 삶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나눕니다.

◎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 보내는 방법 ◎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훈육 ◎ 가족을 위한 섬기는 방법 ◎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제사장 만들기 ◎ 가족과의 관계를 멋지게 세우는 방법

3. <파더와이즈>는 가정,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귀한 삶을 나누게 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상훈 목사 / 가정사역원

지혜로운 아버지 교실
8주

FATHERWISE
파더와이즈

세상 속 다양한 관계(가정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의 삶에서 성경의 원리로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주는 파더와이즈 교실로 주님의교회 귀중한 남성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 기간 2023.10.6(금)~11.24(금) 매주 금요일 오후 7:30(8주)

• 장소 4층 대회의실 ※ 필요시 온라인(ZOOM) 진행

• 대상 및 모집인원 주님의교회 가정, 아버지, 남편인 성도 30명

• 참가회비 3만원(교재 및 교육자료)

• 신청방법 홈페이지 **알립니다** → 가정사역원 하반기 지역일정 또는 **큐알코드** 강자신청
문의 :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 커리큘럼

주차	일시	교육주제
개강식	10.6	환영과 사랑의 인사 (배우자 동반가능)
1주	10.13	성경의 원리로 지혜를 얻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길
2주	10.20	성경의 원리로 인생의 기초와 관계주축을 위한 균간한 토대를 세우는길
3주	10.27	하나님과 남성의 관계 - 훌륭한 아버지로 자녀를 신뢰하는(소통) 방법 -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배우기
4주	11.3	남편과 아내의 관계 -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길
5주	11.10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 자녀의 양육목표를 세우는길 (좋은아빠 되는길) - 자녀에게 세가지 선물주기
6주	11.17	아버지와 세상과의 관계 - 일에 대한 내가지 성경적테스트 -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기
수료식	11.24	간증나눔, 수료식, 기념촬영 (배우자 참석가능)

남성 성도분들이 내면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으로 올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교회 | 가정사역원 파더와이즈

교사일기
유아부

어린이와 같은 믿음

얼마 전 한 유아부 아이가 싹트네실 벽에 붙어있는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물어보니 토끼 그림이 너무 예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그림을 잘 못 그린다며, 사인펜으로 그리는 것은 자신 있는데 물감으로 그리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림 이야기를 조잘조잘해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이야기가 선생님에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말이 참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유아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는 있는 걸까 걱정이 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눈 감자, 손 모으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날이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장난치기 바쁜 아이들을 앉히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 날에는 특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아이들은 배우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쁜 토끼 그림을 보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건 아마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린 이이와 같은 믿음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하는 걸 지식으로는 알아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사실에 감탄하며 감사한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아부 아이들이 찬양에 맞추어 울동하며 뛰는 모습, 작은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서툴지만 말씀을 외워서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말 예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든 그 러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유아부 아이들뿐 아니라 저를 보실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고 아직 어린 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관계없이,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정현 청년 / 유아부



교회사용설명서②

청년을 위한 공동체, 청년부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교회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면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나는 공동체, 바로 청년부입니다. 청년부는 지금까지 겪었던 교회학교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띄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장년 교사가 아닌 같은 청년인 리더와 팀장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예배 시간에 맞추어 함께 진행되던 교회학교와 달리 청년부 예배는 5부 청년예배로 2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예배합니다. 청년부의 소모임(셀)은 연령에 따라 세 개의 공동체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

이런 청년들이 (출생년도 -70=기수)	이런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20~25세 (34~29기)	비전힐 (Vision hill)	비전힐은 20~25세의 청년들의 공동체로 비전힐의 의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의 Vision을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26~33세 (28~21기)	드림힐 (Dream hill)	드림힐은 26~33세의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Dream을 찾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34세~ (20기~)	조이힐 (Joy hill)	조이힐은 34세 이상,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조이힐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Joy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청년부에는 12개의 사역팀이 함께 공동체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팀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단	임원단은 청년들을 대표하여 청년들과 교역자와의 소통, 각 사역팀들과 역할 및 일정 조율 그리고 청년부 내 필요한 행정을 담당합니다.
글로리웨이브팀	글로리웨이브팀은 예배 시 시각적 형성물을 제작,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년부 내 문화사역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D.L.D (Dance Like David) 워십팀	D.L.D 워십팀은 청년부 예배(매월 둘째 주) 및 행사 시 워십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리본 (Re:born) 새가족팀	리본 새가족팀은 청년부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청년들을 교육하고 새가족 청년들을 섬기는 팀입니다.
Root Love 방송팀	Root Love 방송팀은 청년부 예배 시 영상 촬영 및 조명 관리, ppt·자막 및 음향조작, 무대보조(FD)등 방송사역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리빌드 통일선교팀	리빌드 통일선교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청년부 내의 탈북청년들을 섬기는 팀입니다.
브릿지 콰이어	브릿지 콰이어는 청년부 예배 및 행사 시 합창으로 예배를 섬기는 팀입니다.
사랑나눔팀	사랑나눔팀은 청년부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교회 밖 소외된 계층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팀입니다.
새벽이슬 찬양팀	새벽이슬 찬양팀은 청년부 예배 및 각종 행사 시 찬양과 관련된 사역을 섬기는 팀입니다.
예배진행팀	예배진행팀은 청년부 예배 시 성도들을 안내하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섬기는 팀입니다.
프리즘 사진팀	프리즘 사진팀은 청년부 예배 및 행사 시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 섬기는 팀입니다
캔버스 콘텐츠크리에이팅팀	캔버스 콘텐츠크리에이팅팀은 청년부 예비 시 영상광고를 제작하고 교육 및 행사 시 홍보·후기영상 제작과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교회학교와 장년부 사이의 시기에 있는 청년부, 가장 힘 있고 든든히 서 있어야 할 부서라 생각합니다. 교회학교를 마치고 청년의 시기를 거쳐 교회 내에서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부 청년들이 교회학교와 장년부 두 세대의 연결다리로서의 역할과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에스더 편

이번 호에는 <에스더>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에스더>는 바사제국 아하수어로 왕의 통치 기간 중 유대인을 제거하려는 하만의 음모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71호 느헤미야 편 정답



가로 힌트

1. 아하수어로 왕의 여러 내시 중 하나. 하만이 만든 나무에 하만을 달도록 왕에게 조언했다. (에 7:9)
3. 구약 시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유대인 에스더를 왕비로 맞았다. (에 1:17)
5. 왕의 명령을 알리는 문서. 아하수어로 왕은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 하만의 계략에 따라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라고 결정했을 때, 이를 취소했을 때 이 문서를 내렸다. (에 9:14)
7.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하수어로 왕의 대신이었으며, 모르드개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에 3:2-11)
8. 구약 시대의 절기.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다. (에 9:19)
11. 관직을 맡아 일하는 사람. 구약에서는 높은 직위에 있는 관리를 말한다. (에 8:9)
12. 하만의 첫 아들. 유대인을 멸절하려던 하만과 아들 열 명은 모두 수산에서 죽었다. (에 9:10)
13. 빨리 달릴 수 있는 좋은 말. 조서를 내리는 것과 같은 급한 일에 사용되었다. (에 8:10)
18. 베냐민의 자손.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키웠으며, 아하수어로 왕의 왕후가 되도록 했다. (에 2:10)
20. 아하수어로 왕 때의 일곱 방백 중 하나. 왕에게 조언하는 조언자 중 한 사람이었다. (에 1:14)
21. 아하수어로 왕의 왕후. 왕이 잔치 자리에 불렀으나 가지 않아 폐위되었다. (에 1:19)
22. 베냐민 사람. 모르드개의 선조이다. (에 2:5)

세로 힌트

2. 가지와 잎, 줄기와 뿌리가 있는 식물. 이것으로 가구와 악기를 만들고 기둥을 세워 집을 지었으며 연료로도 사용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이것을 세웠다. (에 5:14)
3. 에스더의 아버지. 모르드개의 삼촌이다. (에 2:15, 9:29)
4. 베냐민 지파 아비히일의 딸.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으며, 사촌인 모르드개가 딸처럼 길러, 후에 아하수어로 왕의 왕비가 되었다. (에 1:17)
6.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람. 아하수어로 왕의 조서를 쓰고 지방에 내렸다. (에 3:12)
9. 바사 제국의 수도. 아하수어로 왕의 궁전이 있었다. (에 9:6)
10. 아하수어로의 내시. 궁궐 대문을 지키던 일곱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왕을 모살하려고 했다. (에 6:2)
12.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물로 된 영역. 아하수어로 왕이 조공을 받았던 섬들도 바다에 있었다. (에 10:1)
14. 아하수어로 왕의 자문관 중 하나. 왕이 왕후 와스다에 대한 규례를 물었을 때 자문관이었다. (에 1:14)
15. 아하수어로 왕의 자문관 중 하나. 왕이 왕후 와스다에 대한 규례를 물었을 때 자문관의 하나였다. (에 1:14)
16. 아하수어로의 어전 내시 가운데 하나.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오도록 하는 왕의 명령을 전달했다. (에 1:10)
17. 아하수어로의 내시 가운데 하나.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에 2:3)
19. 하만의 아내.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하만의 의논 상대였다. (에 5:14, 6:13)

교회소식

장수현 목사, 길가에교회 담임목사 청빙

2013년 주님의교회 부목사로 부임, 2018년까지 재임했으며, 이후 푸른나무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장수현 목사가 길가에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길가에교회는 2005년 주님의교회에서 번식하여 세워진 교회로, 주님의교회와 같이 자체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교회 정관에 두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동화중고등학교 시청각실 등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교 봉사 및 청소년사역에 비전을 두고 동화중학교 종교수업 및 동화고등학교에 학원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길가에교회에서는 2005년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기틀을 닦아온 이인호 담임목사의 정년에 따라 2023년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했으며, 8월 27일 장수현 목사의 청빙이 확정되었다. 장수현 목사는 전임 이인호 담임목사가 퇴임한 후인 올 연말에 부임할 예정이다. 장수현 목사는 “부족한 이가 길가에교회에 청빙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몸 된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 된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함줄함울



교회일정

9/19(화)~21(목) 108회 예장통합총회
10/4(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1교구)

알립니다

1. 학교 출입자 인적사항 확인 시행안내(교육청 지시사항)

9/11(월)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 시 교인들도 출입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평일 오전 9:00 ~ 오후 4:00까지 시행
※ 차량출입 : 사전 허가된 차량만 출입가능

2. 남선교회 주관 족구대회 (대상 : 전교인)

일시 : 9/17(주일) 오후 3:30~6:30
장소 : 다목적 체육관 5층
문의 : 이승균 안수집사(010.2910.9140)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바랍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꿈꾸는 3막

주	주제
1주차	여는 예배
2주차	영성
3주차	비전
4주차	지성
5주차	꿈꾸는 신학
6주차	건강
7주차	관계
8주차	영향력
9주차	닫는 예배

- 대 상 주님의교회 65세 이상 성도
- 기 간 10.5(목)~11.30(목)
- 시 간 오전 10:00-12:00 / 초등부실(3층)
- 모집인원 32명(선착순)
- 문 의 한시영 목사 (010-4822-4523)

2023 주님의교회

친선 족구 대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133:1)

일시 9월 17일 오후 3시30분

장소 다목적관 5층 체육관

주최 주님의교회 남선교회

선수등록 및 참가안내 문의

1남 (~1953년생) 이명기 회장 010-6256-1460
2남 (54~58년생) 이종만 회장 010-3789-2822
3남 (59~63년생) 최우철 회장 010-6246-7175
4남 (64~68년생) 이성호 회장 010-2000-0880
5남 (69~73년생) 이승균 회장 010-2910-9140
6남 (1974년생~) 윤승진 회장 010-3035-4202

8기 해피맘스쿨

10/10 ~ 11/28 (8주)
매주 화, 1시, zoom

기도하는 엄마 잠언태교

2023 가을학기

양육 클래스

9.7(목) ~ 11.25(토)

온라인

- 예수님의 내 얼굴
-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가정

목 / 오후 7:00 미션 퍼스펙티브스 PSP

금 / 오전 10:30 MBTI-성격유형과 신앙성장

신앙의 기초 새우기

고린도전서 강해

바울서신 개관 및 통독2

금 / 오후 8:00 금요일에 시간 아껴요?

토 / 오전 10:00 영성훈련Ⅲ 신앙수훈과 영성생활

주일 / 오후 2:30 성자가 좋다

신형기간 8.20(주일) ~ 9.3(주일)

신형방법 각 강좌 담당 목사에게 문자로 신청 또는 교회 홈페이지 - 양육과 훈련 - 양육 - 양육클래스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문 의 윤경수 목사(010-9407-3709)